

종영 '와이키키2', 다시 돌아온 이유 증명했다



'으리차차 와이키키2'가 청춘들이
유쾌한 에너지로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 JTBC 월화드라마 '으

리차차 와이키키2'(극본 김기호, 송
지은 송미소 서동범, 연출 이정민)
가 인생의 봄날을 맞은 와이키키 청

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수연(문가영)은 우
식(김선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웃픈' 청춘들의 성장기 따뜻한 공감 선사

확인했다. 하지만 민아(송지우)와 함께 있는 우식의 모습에 수연은 차마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던 중 수연의 아빠(정인기)가 나타났다. 눈물로 재회한 부녀는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은 우식과 수연은 깊은 후회와 아쉬움에 다시 서로에게 돌아왔다. 수연은 우식에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의 첫사랑이 드디어 끝어졌다.

새로운 '썸남'과 만나는 정은(안소희)에게 질투를 느끼던 준기(이이경)는 운명의 여자를 찾아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면길을 돌고 돌아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결국 정은이었고, 준기는 '여사친' 정은에게 묵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봉(신현수)은 타자로 야구팀 복 귀를 제압받고 도전을 망설였다. 유리(김예원)는 그런 기봉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던 중 두 사람의 CCTV에 키스하는 모습이 포착되

며 관계가 단로 났다. 설상가상 유리의 임신 소식으로 시끄러워진 틈에 기봉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청혼을 했다.

지난 3월 25일 처음 방송된 '으리차차 와이키키'는 더 강력해진 웃음과 현실 공감, 풋풋한 설렘까지 더하며 신개념 청춘 드라마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뭉친 이창민 PD와 김기호 작가가 군단의 제회는 역시나 끝았다. 잠신한 에피소드로 종무정한 대본과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져 따뜻한 웃음을 안겼다. 시즌2로 돌아온 이유를 증명한 것.

여기에는 '와이키키' 웃음 치트키 이이경을 비롯해 김선호, 신현수, 문가영, 안소희, 김예원까지 청춘 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선호는 진지와 코미를 오가는 변화무쌍한 매력과 첫사랑을 향한 지고지순한 로맨스로 설렘을 자아냈다. '와이키키는 곧 이이경'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이경은 시즌2에서도 특유의 코믹 연기로 웃음을 안겼다. '순수美' 넘치는 국기봉 역을 맡은 신현수 또한 '배꼽 스텔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유쾌한 설렘을 선사한 문가영과 맹기진도 불사란 파격 연기를 선보인 안소희, '와이키키'의 왕언니로 경렬한 존재감을 발산한 김예원 등은 극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갔다.

여전히 꿈을 향해 고군분투 중인 청춘 군단의 모습은 뭉클한 여운을 남겼다. 가수 재기에 도전했지만 무명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우식, 독립영화 주인공으로 거듭났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준기, 메이저리그 대신 어린이 야구 교실을 누비게 된 기봉까지 그들의 도전과 열정은 현재진 행형이었다.

가진 것도 되는 일도 없는 '웃픈' 청춘들의 성장기는 경쾌한 웃음 너머 따뜻한 공감을 선사했다.

꿈과 사랑 앞에 포기 대신 긍정 에너지로 직진하는 이들의 모습은 현실 청춘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건넸다.

"충격 전개" '어비스' 안효섭 죽음→이성재, 구슬 새주인 등극



'어비스'가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충격 전개로 안방극장을 숨 몇하게 만들었다. 안효섭이 이성재에게 살해당하고 이로 인해 '어비스'의 주인이 이성재로 바뀌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절ting하게 만들었다.

지난 14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어비스' 영훈·소생 구슬(이하, '어비스') 4회는 충격과 반전을 거듭한 고세연(박보영 분)·자민(안효섭 분)의 '오영철(이성재 분) 주격전'이 그려졌다. 특히 방송 말미 차민이 오영철에게 살해당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 안방극장을 숨죽이게 했다. 무엇보다 2번째 부활자 오영철이 '1번째 부활자' 차민의 죽음과 함께 '어비스'의 새 주인이 되는 등 쇼킹한 전개가 펼쳐져 긴장감을 상승시켰다.

특히 '차민의 약한녀' 장희진(한소희 분)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20년지기' 고세연·차민의 갈등이 폭발했다. 장희진이 오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고세연 살인 사건의 용의자' 차민에 대한 제보를 위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 하지만

철은 고세연 살인 사건의 진범이 차민으로 밝혀졌다. "인간이 쓸모가 없어 지면 벌레지. 그게 어디 인간인가?"라는 말과 함께 장희진을 빼낸다. 차민은 피폐한 악인의 모습을 뽐냈다. 하지만 곧바로 차민이 영훈·소생 구슬 '어비스'를 이용해 장희진을 부활시킨 가운데 과연 베일에 씨인 오영철·장희진의 관계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런 가운데 차민은 자신의 무죄 입증과 오영철을 잡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바로 모든 비밀을 풀 열쇠이자 변한 오영철의 얼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박기민의 입을 열기 위해 혼수상태에 있는 그를 죽인 후 '어비스'로 되살리겠다는 것. 하지만 고세연은 박기민을 만나러 간 차민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를 찾아 나섰고 병원 뒤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차민을 발견해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특히 '어비스'로 차민을 살리려는 순간 초록빛의 '어비스'가 차가운 물들이로 변한 뒤 재가 되고, 사라졌던 '어비스'가 오영철의 옷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장희진의 죽음과 부활, 안효섭의 죽음까지 폭풍처럼 휘몰아친 전개가 심장을 놓깃하게 했다.

이와 함께 '어비스' 영훈·부활의 법칙이 추가로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비스는 '어비스'를 통해 부활한 지들의 눈에만 보이고, 소유자와 사체 둘만 존재할 때 활동된다. 어비스의 주인이 사망할 시 2번째 부활자가 어비스를 갖게 된다는 것. 과연 차민은 이대로 죽은 것인지, 오영철이 '어비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개가 기대를 높였다.

무엇보다 오영철·장희진의 미스터리한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서 진술에서 뉴스 전화 인터뷰까지, 장희진의 모든 거짓말 뒤에는 '그녀의 어머니' 정선영을 이용한 오영철의 협박이 있었던 것. 특히 장희진은 노인으로 부활한 오영철을 그의 수하로 알고 있었고, 오영

'슈퍼 히어러', 6월 16일 첫 방송



'슈퍼 히어러'가 오는 6월 16일 첫 방송된다.

tvN이 오는 6월 16일,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슈퍼 히어러'를 론칭한다. 본격 '귀피설' (자신의 귀를 근거로 한 주장) 음악 주제 예능인 '슈퍼 히어러'에는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톱클래스 뮤지션들이 '히어러' (Hearer)로 출연한다.

이들은 비주얼은 보지 못한 체 오로지 싱어들의 노래하는 목소리만을 듣고, 5인의 싱어들 중에서 매주 주제에 맞는 진짜 싱어를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등 듣는 것 만으로는 정체를 알기 어려운 싱어들의 목소리와 '히어러'들의 추리를 통해 '히어러'들이 추리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 '귀피설' (자신의 귀를 근거로 한 주장)로 정체를 찾아나가는 '히어러'는 물론 시청자들의 추리까지 유쾌하게 뒤집는 반전 기득한 무대

들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슈퍼 히어러'의 '히어러'로 먼저 윤종신과 강타, 장윤정, 케이윌이 출연을 확정했다.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는 이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신들의 귀를 평가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

이어 '히어러'들의 추리를 방해하는 '빌더'으로는 김구라, 박종형, 황제성 등이 등장한다. 리액션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이들은 심리를 자극하는 토크와 연기를 통해 '히어러'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예정이다.

'슈퍼 히어러'의 제작진은 "음악 분야에서의 권위자, 실력자들이 오직 귀에 의존해서 온갖 방해 작전에도 불구하고 싱어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이 즐거움과 반전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슈퍼 히어러'는 오는 6월 16일 오후 11시에 첫 방송된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4주 연속 톱10 신기록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앤솔 차트에서 4주 연속 톱 10에 진입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는 빌보드 200 8위를 기록했다.

이 앨범은 4월 27일자 차트에서 1위로 처음 진입한 뒤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톱 10에 들었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feat. Halsey)'는 빌보드 51위에 올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4주 연속 빌보드 메인 앤솔 차트와 메인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은 '월드 앤솔' 1위, '인디펜던트 앤솔' 2위, '톱 앤솔 세일즈' 4위, '독일 앤솔' 9위, '빌보드 캐나다 앤솔' 11위, '빌보드 캐나다 앤솔 100' 28위, '팝 송' 24위, '스트리밍 송' 40위 등을 기록했다.

또 방탄소년단은 '소설 50'에서 96주 연속, 통산 126번째 1위에 등극해 지난주에 이어 최장기간 연속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써 (LOVE YOURSELF 结 'Answer')' 역시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보다 24계단 상승한 85위를 차지해 순위 역주행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 12일 미국 시카고 솔저 필드 공연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8, 19일 뉴저지 메트리아파 스타디움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 투어를 이어간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음력 4월 12일)



▶ **화** 이상이 높은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무리인줄 알고 있는 일에 무모하게 뛰어들면 손해를 보게 될 듯. 3, 6, 9월생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겸허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판단할 것.



▶ **화** 억지로 모든 일 끌어 맞추려 오기려 마음의 고통만 심해질 뿐. 순리대로 해야 순조로울 듯. 4, 7, 11월생 가족 간 의견 차로 가정에 관심 있을 수. 그 날, 0성씨 마음을 펼히 갖고 임할 것. 진진색 옷을 입는다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니 명심.



▶ **화** 상대의 기분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기분으로만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버려라. 5, 7, 11월생 땀흘려 가면서 일하는 것을 엎어하니 신뢰받기 어려울 수. 2, 5, 9월생 사랑에 빠져 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편안하다.



▶ **화** 언제까지 결단 없이 이끌릴 것인가. 신경을 많이 쓰면 주관이 흔들릴 수. 냐, ㅅ, ㅎ, 성씨 일보 후퇴는 이보전진할 수 있는 힘이니 정에 이끌리지 말고 재집토하며 침착하게 처리하여 길을 찾을 것. 목표를 세웠으면 실행에 옮김이 좋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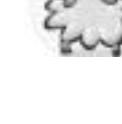
▶ **화**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서 새롭게 생활할 것. 융통성이 있는 그, ㅅ, ㅇ, ㅊ성씨는 말하기가 어려워도 착실하게 노력해 쌓아가니 사회에서 신용을 얻을 수. 부부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도 결정 못하는 것은 자식 때문이구나.



▶ **화** 눈앞에 닥친 급한 불 꺾다고 한 숨 돌리지 말 것. 1, 4, 8월생 생각이 깊어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가려는 것은 좋으나 급한 성격에다가 번덕 또한 심하구나. 더 큰 일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안간마음을 꺼꼼히 할 것.



▶ **화** 모진 풍파를 견디면 끝맺음 또한 좋을 듯. 눈에 보이지 않으나 혼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의 강도를 알 수 있다. 근, ㅇ, ㅊ성씨 불평이나 불만은 건강에 해를 초래한다. 스스로에게 충실히 만인이 최선의 길임을 알 것.



▶ **화** 상대의 기분을 해야 하는 여유를 가져질 것. 1, 2, 5, 9월생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귀기 때문에 삶에 귀중한 보물이 될 수도 있다. 마음 씀씀이가 깊어 한 번 만난 사람에게도 오해받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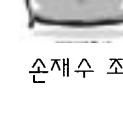
▶ **화** 자신의 인생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는 법.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개척하라. 그, ㅇ, ㅊ성씨 옛것에 이끌리지 뒤돌아 보는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만 낙오되지 않을 듯. 2, 5, 7월생 관계수 조심. 남, 동쪽은 불길.



▶ **화** 사회생활도 가능성도 조화를 잘 이루는 지금의 위치를 넘겨야만 변장할 수. 기회는 얼마든지 온다. 세상에 본인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4, 5, 11월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분별 있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지켜 나갈 것.



▶ **화** 사려 깊고 분별력 있지만 자기만의 아침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한걸음만 전진할 때 두각을 나타낼 수. 1, 5, 10월생 과거 일은 과거 일로 접어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으로 임할 것. 북, 서쪽이 길.



▶ **화** 같이 백년 해로 하지 못할 사람에 연연해 하다가 세월 가는 줄 왜 모르는가.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것 있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냐, ㅅ, ㅊ, ㅎ, 성씨 생각과 결과는 펑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 7, 8, 9월생 노란색 삼가. 순재수 조심.